# 외손녀 따라간 독일여행【終】

權 五 庠
편집고문

▲ 프라하의 어느 교회 앞에 선 필자 내외와 연수 모녀

12일도 날씨는 맑고 상쾌했다. 일찍 일어나 아침운동도 하고 여행준비도 마쳤다. 오전 11시쯤에 역으로 가 프라하행 기차에 오른다. 가족석이 마련된 1등실이라는 데 자리를 잡는다. 가족석이라 해도 칸막이는 없고 원형테이블에 의자를 놓고 한 가족이 모두 둘러앉게 되어 있다. 원형테이블이 여러개 놓여있으니 마치 식당과도 흡사하다. 연수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양편 차창을 내다보며 경치를 감상하기에는 더 좋다. 온 칸이 텅 비어 마치 열차 한 칸을 전세낸 것같기도 하다. 연수까지 다섯이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며 차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동안 열차는 쉬지 않고 프라하를 향해 달린다. 몇 곳 역에 멈춘 뒤 계속 달린다. 가다보니 드레스덴(Dresden)이라는 크고 아름답고 유서깊은 도시가 있었다. 일견해 그 도시에서도 하루 정도 묵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산뜻한 곳이었다.

계속 달리다보니 주택의 모습과 상태에서 독일쪽과는 좀 다른 광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제는 체코인가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이, 어느덧 프라하역에 도착했다. 약 여섯 시간이 걸린 듯하다. 역시 국경의 구분은 없다. 도착 전에 딸이 민박집과 연락하여, 민박집 사람이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니 더 반갑다. 내 짐을 기꺼이 받아주어 고맙기도 했다.

민박집까지는 역에서 그리 멀지 않아 걸어서 갔다. 차린 적도 얼마 안되는 민박집이라는데도 깨끗하고 운영도 제법 잘되는 것같았다. 밤에는 아래층에서 현지인 보초가 밤새 지킨다고도 했다. 가족실로 방을 정했다. 그 집에서 준비한 칼국수로 저녁식사를 끝낸 뒤 바로 프라하성 야경을 보러 나갔다. 걸어서 번화가를 지나 강가에 이르니 맞은쪽 야경이 대단히 아름답다. 오늘은 야경만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와 쉬기로 했다.

아침 식사를 바쁘게 챙겨 먹은 후 체크아웃을 했다. 민박집 관리인이 알려주는대로 바로 앞에서 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입세와드(?)성에 먼저 갔다. 그곳도 정원은 잘 꾸며져 있으나 특별한 볼거리는 없었다. 다시 프라하성으로 와 내부를 둘러봤다. 올라가는 길이 너무 가팔라 케이블 기차를 타고 올라갔다. 성 내부는 매우 넓고 정원 또한 잘 가꾸어져 있었다. 성안에는 건물도 듬성듬성 있고 관리인인 듯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체코 대통령의 관저가 그 성안에 있다고도 했다. 연수는 유모차 안에서 아무런 말없이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즐기는 듯했다. 그렇게 자주, 멀리 여행을 해도 보채거나 불만을 나타내는 법이 한번도 없다.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 시간이 오후 세 시경이라 늦지 않기 위해 일찍 번화가를 가로질러 역으로 향했다. 내려오면서 유서깊은 몇 곳 성당도 보고 사진도 찍었다. 프라하에는 규모가 크거나 대단한 문화재가 있는 것같지는 않다. 하지만 어디를 가나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 고색창연한 흔적이 역력하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군이 쳐들어오자 주변국들과는 달리 바로 항복해버려 파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연유로 모든 유적이 보존되고 오늘날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자존심을 판 대가가 오늘날 관광자원이 되어 후대들이 잘사는 여건이 되고 있다니 아이러니칼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 모든 관광지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단다.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인 것같기도 하다. 이런 것이 우리 속담에서 말하는 '보리밥풀로 잉어 낚는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프라하의 봄과 관련된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의문도 가져본다.

프라하 거리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다. 거의 모든 길과 광장의 바닥에 돌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유모차가 움직이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너무 흔들리는 것같아 행여나 하는 마음에서 연수의 얼굴을 봤으나 별다른 변화는 없다. 나와 같이 무릎이 불편한 사람은 걸음마다 통증을 남긴다. 무릎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돌길과 자갈길이 가장 안좋다. 그 다음에 안좋은 것이 시멘트나 블록길이다. 그 다음이 나무와 아스팔트길이고 가장 좋은 것이 흙길과 우레탄같은 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잘한답시고 공원 안의 보행로에도 시멘트나 블록같은 것을 까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비가 오면, 흙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이란다. 선진국의 경우는 흙길을 그대로 두는 수가 많은 것으로 안다. 내가 본 런던의 하이드파크나 시드니의 하이드파크 모두 보행로는 흙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에 본 베를린의 공원에서도 그러했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정확한 플랫폼을 찾는 데 신경이 쓰였다. 맞게 들어와서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가끔 우리나라 기차역에서도 방향감각을 잃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 황차 외국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기차시간에 늦을세라 연수를 유모차에 태운 채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막상 기차는 한 시간 정도 연착이란다. 기차에 오르니 이번에는 완전히 칸막이가 된 가족실이다. 정원은 여섯 사람이라 창가의 두 자리는 외국인 내외가 앉았다. 연수의 자리가 없어 불편할 것같았다. 가다 보니 마침 옆방이 비어 연수네 가족을 그리로 옮겨 앉게 했다. 독일에서의 마지막 여섯 시간 가량의 기차여행은 이렇게 막을 내린다. 소위 특급열차가 한 시간을 지연했음에도 사과방송이나 승객들의 항의도 없는 것같았다. 외국인데다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제 독일여행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집근처 공원으로 걷기운동을 나갔다. 열심히 걷고 있는 동안 중고등학생의 등교시간이 된 모양이었다. 학생들이 하나 둘 공원을 지나가고 어떤 학생은 몇명씩 벤치에 모여앉아 담배를 피워 문다. 시간이 더 지나자 벤치마다 남녀 학생으로 채워졌고 거의 모든 학생이 담배를 피운다. 담배연기가 온 공원을 가득 메운 듯 냄새가 심하다. 오히려 어른들은 담배를 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 장관이라고나 할까. 해괴하다고나 할까. 내 스스로 민망스러워지기도 한다. 내가 운동하려고 왔는지, 담배냄새 맡으러 왔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기도 했다. 옛날 대영박물관에 들렀을 때 상당히 어린 딸을 포함한 5,6명의 딸들과 한 어머니가 위아래계단에 순서대로 줄을 지어 서서 모두 담배를 피워 문 진풍경을 본 일이 있다. 어디서 촬영을 하는가 싶어 살폈으나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것이 몇십년을 지난 오늘날까지도 잊혀 지지 않는다. 이번의 장면도 오래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것도 또하나의 추억을 쌓는 일인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

베를린 거리에서는 뚱보를 볼 수 없다. 주택가에 인접한 조깅코스에도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다. 어쩌다 한두 사람이 있어도 잠시로 끝나는 것같았다. 그러다보니 독일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한다. 조깅이나 걷기운동을 할만한 장소에는 어디없이 아침저녁으로 만원을 이루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하루에 걷기를 100분 정도 하고 맨손체조와 아령을 40분 정도 하는 내 아침저녁운동도 너무 과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기도 한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하는 운동은 무릎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피로를 느끼게 해도 내 건강유지의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루 종일 연수를 데리고 나가 재롱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연수와 함께 하여 재롱을 보는 것이다. 오래오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다음날도 연수를 데리고 쇼핑센터도 가고 놀이방도 갔다가 모래놀이도 했다. 모래놀이 중에 연수가 "할머니 서울 안가면 안돼?"하고 애원하다시피 몇번이나 물었단다. 어린 것이 할머니·할아버지가 서울로 떠나는 날이 임박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알아차린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속에 잔잔한 안타까움의 파도가 이는 것을 느낀다.

저녁에 연수와 단 둘이 마주앉는다. '서울에서 하삐 뿌야라고 한 말이 어디 말이지?' 하고 물었다. 나의 느닷없는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말, 한국말'이라 한다. 연수가 독일로 올 임시에, 이 할아버지를 놀리고 싶을 때는 뒤로 살짝이 다가와 '하삐, 뿌야' 하고는 도망치곤 했다. 그것이 어디 말이지 하고 물으면 '독일 말, 독일 말'이라며 둘러대었다. 그 말의 뜻은 '할아버지가 뿔났다'는 말을 제 나름대로 줄여서 말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독일말이라 얼버무리고 독일에서는 한국말이라 둘러대는 어린 연수의 날렵한 기지를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5월 15일 낮 12시경에 베를린 공항으로 출발한다. 나는 연수와의 석별이 싫어 앞만 보고 앉아 있다. 연수도 이별의 아픔을 느끼는지 조용히 앉아 차창 밖만 내다본다. 10여 분을 달려 공항에 다다르니 너무 일찍 도착했다. 좀 기다려 프랑크푸르트행 탑승수속을 마쳤다. 바로 몇 가지 간단한 선물 산 것에 대한 세금환급 수속에 들어갔다. 그 장소를 몰라 물어물어 찾아갔으나 그 주변이 공사중이라 찾기가 쉽지 않다. 비록 적은 금액이나 더욱이 외국이니 귀찮아도 꼭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묻고 물어 세관 사무실에 찾아들어갔다. 판매 상인들의 말에 따라 미리 작성했던 환급요청서를 담당직원에게 건네 주니 추가로 몇 가지를 더 기입하란다. 순간적으로 환급하지 않으려는 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본다. 그 요구대로 수정해 보이니 즉석에서 사인을 하여 옆에 있는 현금지급창구를 찾아가란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순순히 현금을 되돌려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앞서기도 했다. 바로 현금을 계산해 되돌려 주는 것을 보면서 나의 쓸데없는 생각을 자책하기도 한다. 빨리 연수에게로 돌아와 어린애마냥 자랑 아닌 자랑을 한다. 모두 딸에게 건넨다. 내가 쓰다 남은 돈은 모두 연수의 지갑에 넣어준다. 연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물끄러미 보고만 있다.